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출구조사기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찾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 후보는 35.5%가 진행된 개표에서 39.4%(457만9,885표)를 득표해 26.6%(309만1,000표)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148만8,885표 차로 크게 앞질렀다. 또한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문 후보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 1위로 예측되자 당 개표 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며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간절함과

35.5% 개표기준 득표율 39.4%
홍준표를 12.8% 차로 크게 앞질러
문 "개혁·통합 두가지 과제 이룰 것"

간절함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댈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

라며 "제 뒤에 우리당이, 여러분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겠다.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대국민 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

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이날 사실상 승복 의사를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밤 10시 30분쯤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선거결과는 수용한다"며 "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 후보도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패배를 시인했다. /인재용 기자

5-9 **춧불대선 INDEX** 2면 - 문재인 당선, 전복 뭇 찾기 실현 가능할까? 3면 - 대통령이 된 문재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4면 - 도내 곳곳 투표 현장 이모저모 6면 - 도내 경제인 3명 '제19대 대통령에게 비관다'

www.2017worldtaekwondo.com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8월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합성운 태권도원으로!
73여 세계인들의 열기를 무주로!
세계 태권도 성지 muju

주최: WFTC, WTA, WTK, WTKF, WTKS, WTKM, WTKO, WTKP, WTKR, WTKS, WTKM, WTKO, WTKP, WTKR

주최: WFTC, WTA, WTK, WTKF, WTKS, WTKM, WTKO, WTKP, WTKR